"학생 건강 우리가 책임져요"

전남교육청, 학교급식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지난 1월 26일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행정실장과 영양교사 353명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으로 건강인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급식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식재료 확대 사용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열린 학교급식 운영 등 내실있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급식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토록 하였다.

아울러,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방법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복수 대면검수를 철저히 함은 물론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확인 및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식중독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식약청, 도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년도에 이어 농어촌지역 10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 322교에 125억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은 물론 효율적인 급식 운영으로 학교급식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만철 기자 jmc@eduyonhap.com

"'청렴' 우리는 알아요"

광주양산초, 청렴연구 시범학교 '최우수상' 수상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지난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청렴연구 시범학교 합동 보고대회에서 광주양산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양산초등학교(교장 정남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08년도 청렴연구시범학교로 지정 운영되었으며, 1차년도의 우수사례를 높이 평가하여 2009년도 청렴연구시범학교로 재지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 학교는 청렴연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 청렴교육을 위한 교재 '푸름이와 놀자 Ⅰ, Ⅱ, Ⅲ'를 2008년 자체 개발했다.

◆ 지난 1월 26일 2009년 청렴연구 시범학교 최우수교 선정돼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이 양산초등학교 노정현 교사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콘텐츠 추가 개발 및 손쉬운 접근을 위해 교재의 E-Book화와 함께 다양한 청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체험중심 청렴교육을 실천하는 등 학생 청렴교육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9년 11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이 광주양산초등학교의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보고회에 직접 방문해 성과 내용을 살피기도 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광주양산초등학교의 청렴연구 시범학교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생활체험 중심 학생 청렴교육이 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미래 청렴 꿈나무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덕원 기자 sdw@eduyonhap.com

'행복' '사랑' 그리고 '방과후학교'

광주시교육청,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공교육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월 29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방과후학교 체험 수기 '행복해요!사랑해요! 빛고을방과후학교' 공모 입상자 41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의 최우수상은 '1주일의 생활이 1년의 행복으로'라는 제목으로 응모한 일신초등학교 학부모 이성규씨가 뽑혔다.

방과후학교 체험 수기 공모는 빛고을방과후학교를 널리 홍보하고 방과후학교 관심 제고를 위해 학생(대학생), 학부모, 교사, 외부강사, 돌봄강사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학생 분야는 광주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과 멘토 역할을 했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분야는 방과후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자, 엄마품 멘토와 학부모 코디네이터, 기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사 분야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외부강사 분야는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및 교과지도를 하고 있는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돌봄강사 분야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기초학력지도와 생활지도, 상담 등 보육교육을 담당하는 돌봄강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학생 45명, 학부모 23명, 교원 17명, 외부강사 34명, 돌봄강사 13명 모두 132명이 응모하였고, 외부인사 5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 1명, 분야별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특별상 5명 등 41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빛고을방과후학교 체험 수기 공모 당선작은 책으로 펴내 입상자는 물론 전체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최우수상을 받은 이성규씨는 "1주일간의 아이 행복이 내 아이 하나만의 행복이 아닌 우리 가족의 행복이 되었으며, 1학년 신입생으로 가져야 할 학교에서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가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초등 돌봄교실의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내 아이에게 삶의 즐거움을 안겨준 보육교실 다양한 활동은 행복 그 자체였다."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김순기 기자

광주시교육청, '새롬이 특강단' 위탁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광주교육의 변화 서포터즈 역할을 담당할 '새롬이 특강단' 위탁교육을 지난 1월 26~29일까지 4일간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4층 소강당에서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2일~11월 25일까지 공모를 통해 지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장 5명, 교사 9명, 장학사 1명, 행정직 2명 총 17명의 '새롬이 특강단'을 구성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직원의 변화 마인드 함양과 직장 내 변화문화 조성에 시동을 걸게 된다.

이번 교육은 광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리장언)에 위탁하여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와 긍정적 마인드를 불어넣는 리더십 기술 습득 및 수준 높은 커뮤니케이션 역량 획득, 자신의 강점을 적극 활용한 차별성 있는 강의 기법 습득 등의 전문 교육 내용으로 4일간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김순기 기자

장휘국 광주교육위원, 교장 임용 사학법 위반 의혹 제기

교사 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광주 학교법인 정광학원이 교장 임용과정에서 사학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은 25일 시교육위원회 제181회 임시회의에서 "정광학원이 2007년 1월 19일 개정한 정관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정광고 정 모 교장은 2009년 8월 31일자로 교장 임기가 끝나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이 2007년 1월 19일 상위법에 위배된 정관을 승인해줘 정 교장의 임기가 2010년 6월 30일까지 보장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광학원의 정관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지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답변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정광학원은 지난해 초 교사 채용 과정에서 순위 조작 등 비리 사실이 밝혀지자 시교육청이 당시 정광학원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2명과 정광중·고 교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교육청의 요구를 거부하여, 시교육청이 후속 조치로 학급 수 감축과 냉난방비(8억원) 예산 지원 중단 등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 논란이 됐던 기간제 교사 13명 중 학급감축에 따라 감원된 5명을 제외하고 8명을 재채용키로 하고,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 가운데 논란이 된 4명은 공채로 선발키로 하는 등 학교법인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오태곤 기자 otg@eduyonhap.com

조선대 임시이사체제 마감, 강현욱 이사장 첫 공식입장 표명

22년간의 임시이사 체제를 마감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조선대학교 강현욱 이사장이 취임 이후 첫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 1월 25일 담화문을 통해 '조선대는 지난 22년 동안 급변하는 교육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제는 이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3가지 과제로 "변화하는 교육환경 선도, 객관적 시각으로 생각의 차이를 극복, 화합하는 자세"를 제시하며 구성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현 집행부와 구 경영진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선대 정상화를 완성하겠다며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선대학교가 속한 호남지역에서는 금번 정이사 선임에 대한 찬반론과 함께 진보신당 광주시당의 '조선대의 시립대학 전환'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정이사 전면 재구성'의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김순기 기자 ksk@eduyonhap.com

월례휴가제 활성화

전라남도교육청은 공무원 휴가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월례휴가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본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분기마다 월별 연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한달에 하루이상 가족여행과 자기계발, 부모에게 효도하는 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조만철 기자

박주선 의원 초·중등 무상 급식 법안 발의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대표로 23인은 1월 27일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법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초·중학생에 대해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박주선 의원은 "세계 10위권인 경제대국에서 의무교육으로 정한 초·중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이 밥을 굶은 채 학교를 다니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자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오태곤 기자

전남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방향 설명회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노일숙)에서는 전라남도내 평생학습문화의 확산을 위한 2010년 평생교육 운영방향 설명회를 도내 평생교육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에 전라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2010년 평생교육 역점사업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개최될 제4회 전남평생학습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